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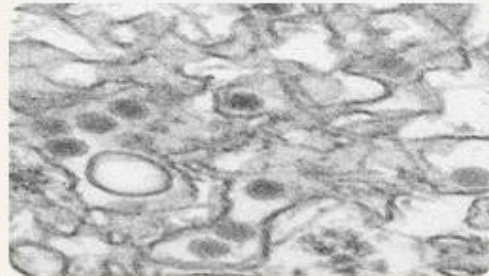
# 지카바이러스

##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



# 지카바이러스 얼마나 위험한가요?

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 
발열, 발진 등의 증상이 약하게  
3~7일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 
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.



다만, 최근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신한  
여성은 발생 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 지카바이러스

## 어떻게 감염되나요?

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, **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.**

다만,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거나,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드물지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



지카바이러스에  
감염된 남성과 임신부의  
성적 접촉으로  
태아의 소두증이  
일어날 수 있나요?



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한 여성이  
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
또한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을 인정하려면  
더욱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 
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.

##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?



〈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〉

지카바이러스를 주로 옮기는 이집트숲모기는  
우리나라에 없습니다.

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옮길 수 있지만,  
국내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.



##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어디인가요?



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[www.cdc.go.kr](http://www.cdc.go.kr))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([travelinfo.cdc.go.kr](http://travelinfo.cdc.go.kr))에서 최근 2개월 이내 발생 국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2016.1.28일 기준 환자발생 국가\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\* 중남미(22개국), 태평양 섬(사모아), 아시아(태국), 아프리카(카보베르데)

##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태교 여행을 가도 될까요?

임신한 여성은 최근 2개월 이내  
환자가 발생한 국가의 여행을  
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

불가피하게 발생국가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 
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##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?

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 
통상 2~7일, 최대 2주 안에

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 
안심해도 됩니다.





##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왔는데,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?



〈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〉



〈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〉

증상이 없다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 
의견입니다.

여행 후 2주 이내에 발열, 발진, 관절통, 눈 충혈 등 의심증상이  
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지카바이러스를 이겨낼 치료제나 백신이 있나요?

현재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 
없으나, 충분한 휴식과 수분  
섭취로 대부분 회복됩니다.



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 
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지카바이러스가 의심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?

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,  
**질병관리본부 콜센터(국번없이 109)**나  
거주지역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